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Francis an Missionaries of Mary

나눔

희망을 지피는

2020.7

가족이 생겼습니다.

FMM 영적 가족 나눔

2010년 둘째 딸이 대학을 입학하고, 인생에서의 임무를 완수한 듯한 느낌을 받고 휴가 분해 하고 있을 때, 엄마가 간경화로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저와 함께 계실 줄 알았지 그렇게 허무하게 제 곁을 떠나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 해, 정 헬레나 수녀님의 소개로 FMM 영적 가족으로 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니 하루아침에 달라진 듯한 2010년은 제 인생에 있어서 터닝포인트를 맞이 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2020년, 영적 가족으로 지내 온 지 10년이 됩니다. 신자로 살아온 지는 오래되었지만 믿음 생활은 열심이지 못한, 아이들과 사느라 바쁜 보통 엄마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자모회 활동을 하기는 했지만 의무감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이들은 매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성당에 가면 제일 재미있고, 즐거웠던 추억을 만들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아이들을 잘 돌봐줄 수 없는 형편이라 아이들만 둘이서 여행을 보내거나 할 때, 걱정스러워하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뺨이 있잖아, 걱정하지 마!”라고 응원을 해주시는 수녀님도 곁에 계셨었습니다.

다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큰아이가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습니다. 우연히 최 도미니카 언니(영적 가족)와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습니다. 초를 봉헌하면서 “저는 성지 몇 번 안 와봤는데, 이렇게 염치없이 와서 우리 아이를 위해 기도해도 돼요?”라고 하니 “다 그렇게 하는 거야. 하느님도 다 아셔”라는 언니의 말씀 한마디에 성지순례를 둘째 대학 입학할 때까지 열심히도 다녔습니다. 그때 매우 감사했었다고 인사도 하고 싶네요. 그렇게 시작되어 의무감으로 다니던 신앙생활은 FMM 영적 가족 입회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지금까지 영적 가족으로서의 삶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에서 결혼을 해서 살고 있고, 둘째 딸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안계시다는 것은 참 쓸쓸했습니다. 친척들과의 관계라든지 형제들과의 관계마저도 뜬하게 만든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둘째 결혼식에 참석한 가족은 모두 7명. 결혼식 후에 양가 가족의 사진촬영이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생각하기보다는 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에 여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완성된 가족사진을 보니 우리 영적 가족들과 함께 찍어서 보기 좋게 어우러져 있었죠. 저는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할지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야 될 영적 가족입니다. 인생 후반 길에 의지가 되는 동반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천주교 신자이기에 가능했고, FMM 영적 가족으로 입회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남은 인생은 영적 가족들과 함께 하느님 안에서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정숙용 베로니카, FMM 영적 가족 2기

참된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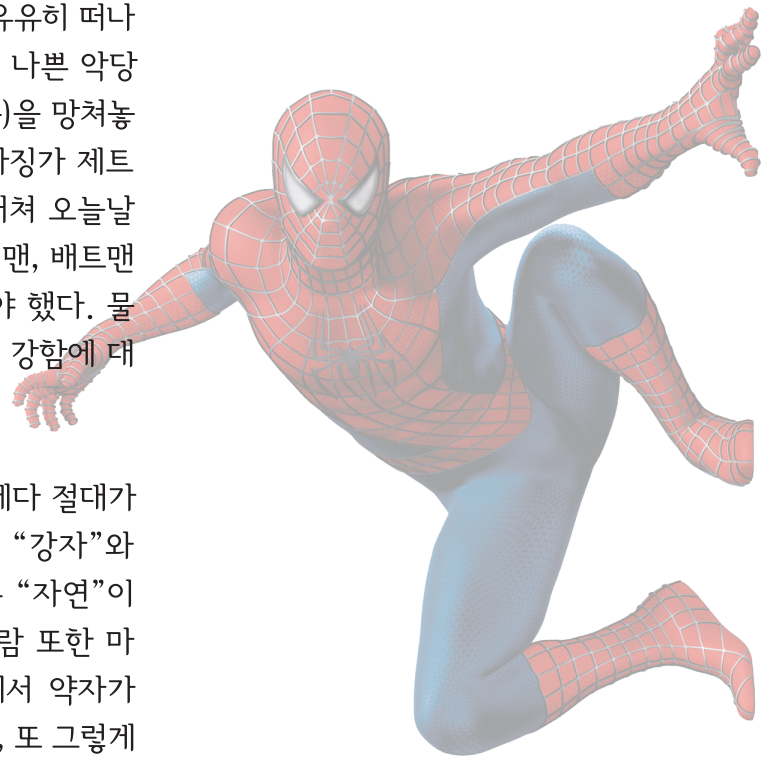
JPIC 글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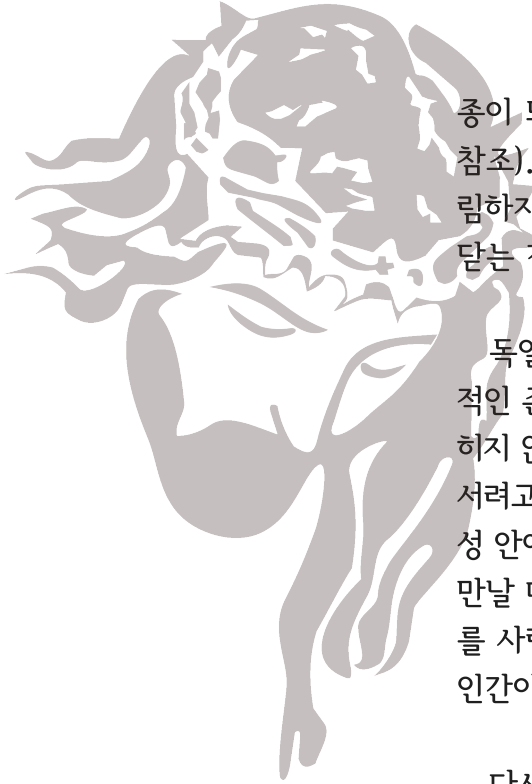
아동학대, 성폭력, 인종차별, 갑질, 고용문제, 환경파괴. 요즘 매스컴을 채우고 있는 주요 뉴스들이다. 결국 힘의 문제다. 물리적인 힘이든 사회 경제적 힘이든, 이 힘의 논리에 약자는 당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죽임을 당하거나, 죽을 위험에 처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 내가 그렇게 당하지 않으려면 나도 힘을 가져야 하는데,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는 일인가?

강하다는 것, 힘이 있다는 것은 언제나 멋진 것이었다. 적어도 어렸을 때 보았던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그랬다. 힘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바로 세웠다. 70, 80년대 서부영화나 전쟁드라마가 떠오른다. 속 시원히 복수하고 유유히 떠나는 주인공들.....만화영화에서도 힘센 우리 편은 나쁜 악당을 통쾌히 무찔렀다. 아이들 영어발음(V와 Z 발음)을 망쳐놓았다고 책임추궁을 받은 로보트 태권 브이(V), 마징가 제트(Z)뿐 아니라, 6백만 불의 사나이, 원더우먼을 거쳐 오늘날에도 각종 “맨”시리즈는 흥행하고 있다. 스파이더맨, 배트맨 슈퍼맨, 아이언 맨 등등. 결국 힘을 힘으로 이겨야 했다. 물론 권선징악이라는 교훈도 있지만, 어쨌든 힘이나 강함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었다.

문제는 이 힘을 잘못 사용하는 데 있다. “힘”에다 절대가치를 부여하는 사회는 구성원을 우열로 가린다. “강자”와 “약자”, 그리고 그 줄의 맨 끝에는 가장 힘없는 “자연”이 “자원”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당하며 서 있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이다. 나는 강자이면서 동시에 강자 앞에서 약자가 된다. 나보다 약한 상대에게는 함부로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도 된다는 생각이 배이게 된다. 그러니 누군가의 밑에 있지 않기 위해서는 부단히 올라가야만 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오히려 “내려가라”고 하신다. 하느님이면서도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님. 사랑 때문에 힘과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신 분, “높은 사람이 되려거든 다른 이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하며, “첫째가 되려거든 다른 이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마태오복음 20장 26-28절 참조). 그렇다. 참된 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이다. 군림하지 않고, 남을 섬김으로써 오히려 내 품위가 올라감을 깨닫는 것이다.

독일 신학자 칼 라너(1904-1984)는 인간을 두고 “자기초월적인 존재”라고 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지만 자신 안에 갇히지 않고, 끊임없이 의미를 추구하며 타자를 향해 자신을 넘어서려고 한다. 이렇게 자신을 넘어서려는 노력이, 마찬가지로 신성 안에만 갇히지 않고 인간을 향해 자신을 내어주는 하느님과 만날 때 비로소 온전한 인간으로 완성된다. 이와 같이 다른 이를 사랑하는 데 우리의 힘을 사용한다면, 이 힘은 우리를 참된 인간이 되게 할 것이다.

다시 뉴스를 본다. 억울한 죽음이나 공포가 없는 세상, 교도소가 텅텅 비고, 판사와 변호사가 할 일이 없는 세상. 양보와 배려가 일상이 된 세상을 기대해 본다. 지나친 이상주의자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인간답게 살려면 결국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히 든다.

- 이영주 스텔라.fmm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마르 6.37)

기도합니다.

회원 소식, 나눔

- 선종 소식

오랫동안 저희 수도회에 후원해주신 문경희 마리아님의 영혼이 하느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받고 싶지 않지만

받게 되는 것은 "~병" 이고 그것에 따라 복용하는 약과 치료, 수술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분씩 말씀 드리지 못하지만 함께 기도로 저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동반하고 계신 가족 분들께도 기도로 지원해드립니다.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는 상황에서도

국가재난지원금에서 그리고 다른 형태로 감사의 마음을 나누어주신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동 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도장,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아래 은행을 방문하셔서 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 재) 성 프란치스코 수녀회

국민은행 362737-04-000395

농협 100072-51-060834

* 후원금이 아닌 미사예물이나 봉헌금은 다음 계좌로 보내주세요.

농협 352-1499-1313-23 예금주 : 김계숙

후원회 : 010-2821-8174 수녀원 : 02-865-8174

E-Mail : fmmssp@hanmail.net

회원님들의 희생과 수고, 사랑으로 보내주신 후원금에 감사드립니다.

6월 1일 ~ 6월 30일까지 입금하신 후원자 명단

(재)고려문화재단 강경아 강미현 강승완 강신연 강연호 강지우(왕효준) 고대완 고월순
고유연 고재영 고지영 고희숙 공해용 구영희 구용회 권순익 권영오 권진선 금부동 금창호
김경미 김경중 김광기 김광자 김귀선미리암 김귀선스테파니아 김남기 김덕철 김도상 김도영
김동일 김동현루가 김두현 김두환(김철형) 김득수 김득현 김미리 김미애자 김민규 김상규
김병수케냐 김상률 김상연 김상일 김상태 김셋별 김선옥 김성용 김성원 김성환 김수경
김수자세실리아 김순철 김시윤 김시준 김애자 김연진 김영덕프란치스코 김영옥 김영운
김영재(허갑수) 김영주 김영준 김영희 김옥림 김옥주 김용수 김용식 김용자(윤소라) 김용주
김용준 김원진 김유정 김재욱 김정매(박치현) 김정숙마리아 김정숙마리아 김정웅(김명신)
김정주 김정혜(정구충) 김주옥 김준희 김지혜 김진미김진선 김진숙알데군다 김진식
김춘자루갈다 김춘자안나 김태욱 김해자 김현숙(최지명) 김혜겸 김호생 김호송 김홍양
김희재 나숙희 나정순 노미경 노봉근 노석심 노연주 노유리 노정애 당효준 류순자 명영희
문경희 문성식 민정웅 박노성 박라희(임영희)박말순 박민선 박병옥 박병주 박성근 박수경
박성길(정은아) 박성준 도미니꼬 박순옥 박승민 박양순 박양순 박연애 박용숙데레사
박원서 박윤실 박은정 박은희 박인호 박재용 박정선 박정순(임현서) 박정식 박정연 박찬순
박태분 박현희 박홍권 박화자 박희수 박효정 박희순 방진 배운숙 배운숙 배인호 배장열
배철희 백성대 변복자 변태식 서춘자 서태진 서현수 석상령 성상모 성영주 성옥이 소재록
손순덕 손은주 손정례 송비아 송순이 송승윤(김영임) 송영희 송정애 송지훈 송창훈 송채영
송혜경 신승일 신주화 심귀선 아가맘2호 안미령 안양금 양미경 양영자 양윤석 양종한
염도학 영. 오숙자오영희 오옥형(최민귀) 오인근 오정자 오지연 우복명 우영희경 원세경
운남동빈첸시오 원세경 유경혜 유미경 유병춘 유시연 유영재 유은분(세인부동산) 유은정
유춘성 유혜정헤레나 유희숙 프란치스 육동배 윤경숙(제일) 윤군자 윤규현 윤명희 윤문섭
윤미숙데보라 윤미숙파우스티나 윤보미 윤봉수 윤순자 윤순희 윤정희 윤한희 윤현숙
이갑수 이강모 이관훈 이광희 이귀순 이기향 이기혁 이남순 이덕호 이동세 이동준 이동현
이명순(이선영) 이명혜 이미자 이민희 이복순 이상문 이선경젼마 이성엽 이성혜(유주영)
이연실 이연재 이영미 이영애 이옥자 이용길 이윤신 이은수 이은정 이은주 이인동 이정원
이인숙(경동메디칼) 이인숙로사 이정란(최윤) 이정숙데레사 이정숙마리아 이정숙수산나
이정준 이정희소피아 이종옥 이준우 이지인프란체스카 이태금 이항남 이해일 이현순
이현순 이혜숙 이홍식 인용석 인후작은형제 임도원(임영희) 임승옥 임정태 임지원 임지원
임진수 임혜숙 임호 장민정 장세옥 장영문 장영표 장우영 장원태 장현아 전순자전영관
전충엽 정경원 정경필 정동락 정명국 정미영 정복순 정부강 정석영 정성민 정소영 정숙자
정영숙 정옥희 정재영 정진명 정진숙 정혜경 정혜숙플로라 정희파키스탄조국제 조근미
조남섭 조명숙 조수미 조재호 조정희 조혜영 조희공 조희 주)가나스틸진성자 진신아
천주교서울대교 최규범 최두진 최선애 최성순 최숙규 최순애 최연희 최옥자 최원단 최원철
최인석 최일순 최정선 최지은 최향미 최혜정 최효순 최희선 추상식 추수옥케냐 추영숙
추종현 파키스탄박진 하옥경 한기훈 한순옥 한영미 한옥선 한은희 한진경 한효정(권오현)
허정자 현경미 홍말숙 홍명숙 홍미자 홍민선 홍민희 홍성란 홍세아 홍수봉 홍승희 홍은숙
홍익기 황경희 황달수 황인복 황정숙